

2018년 11월 28일, 제주시 외도1동 절물마을회관, 이효순 조사.

좌사남(여, 1930년생, 제주시 외도1동)

-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출생, 제주4·3사건으로 고향을 떠나 한림읍 명월리와 한수리에서 살다가 현재는 외도1동 절물마을에서 10여 년째 거주하고 있다.

- 줄거리: 옛날에 서울 남산봉 중허리에서 솟아난 금상또가 천하장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 나라에서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았다. 금상또는 배를 타고 제주에 들어왔는데 김녕의 천자또와 백조부인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돼지 한 마리 전체를 먹는 금상또를 같은 곳에 좌정하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김녕에서는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금상한집을 위해 돛제를 지낸다.

[제보자] 옛날에 심방 굿허는 디서 잘 들었주기.

김녕 본향은 무신 거주게. 김녕에 하르방은 천자또. 부인은 백조부인. 이제 또 돛 천 무리 먹는 귀신은 금상또. 금상또가 서울 남산봉 중허리에서 그것이 솟아나난 막 키도 장수, 얼굴도 꺼멍, 막 힘도 장수. 이길 사람 엇이 천하 장수라. 경현디 이제 궁궐 안에 사또들이영 막 큰어른들이 잇는 그 궁궐 안에 낮에는 연불로 승험을 주고 신불로 승험을 주난 경혜 가난, 아이고, 큰사또들이 그 나중 남산봉에 ‘서울 남산봉 중허리에서 난 장수를 잡는 자가 잇이민 땅 한 착도 갈라주고 물 한 착도 갈라 주肯.’ 헷어.

경허난 막 일만 군사가 몰려든 거라. 칼 받은 이, 총 받은 이 몰려드난 서울 남산봉 중허리에서 궁궐 안에 숨엉 잇이난 ‘그 장수를 잡는 자 잇이민 땅 한 착물 한 착 갈라주肯’ 허난 강 보난 그 장수는 딱허게 앉았이난

“천 명, 만 명이 오라도 눈 한 번 끔짝허민 너네들 다 간디 엇일 거라.”

허난 하이고, 어떻 허영 잡으코, 원 잡을 수가 엊어. 이제 철망. 철망을 가져강 딱 씌우난 이제 잡아진 거라. 잡앙 궁궐 안에 돌아당 석돌에 꿀련.

“넌 어디서 난 장수냐?”

“난 남산봉 서울 남산봉 중허리에서 난, 아바지는 하늘이고, 어머닌 땅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엊인 장수우다.”

“그건 장수가 아니라 역적이구나.”

역적이렌 허영 발로 밟으곡 막 드러 차고 못 전디게 굴어도 죽지를 않애. 죽지

를 안허난 이제 ‘아이고, 어떻 허믄 이걸 죽이코?’ 무쉐집을 짓어낫어. 집을 짓어 낭 무쉐집 안에 숫을 천 석을 가져당 와랑와랑. 무쉐집 안에 숫 천석을 불 살랑 막 집에 불이 와랑와랑 허영, 그 소곱에 드려낭, 문 탁 좀가그네, 석 달 백일을 막 불을 헌 거라. 집이 와랑와랑 불 돌아정. 이만 하믄 죽엇일 거라. 문을 율양 보난 얼음 ‘빙’자를 발창 안에 꽂아난.

“아이고, 이놈들아. 추웡 못 살키여. 이놈들아.”

죽지 안허연 살아 잇어. 경허난 숫 천 석을 살라그네 질러도 죽질 않으니 ‘보통이 아니여. 장수가 아니고 역적이여. 이걸 어떻 허믄 좋고.’ 영허영 죽이젠 헤도 아니 죽엉.

이제 어디 바다에 배가 종선이 잇이난 못살게 구난 저 배를 타그네 나가젠 허영, 배를 탕 혼자 배를 누리우곡 운전헤그네 배를 탄 ‘어딜로 가코?’ 제주 바당으로 들어오는 거라. 들어오당 무나무 열매를 양석으로 쌓아 놓고 허영 오난.

그 장수 들어오는 거 닮으난 귀신이 먼저 알양 천자또 하르방도 그 마을이 본 향이 난, 천자또 하르방이 ‘푸’ 허게 부난 배가 불려 나는 거라. 배가 불려 나난 ‘아이고, 이거 나를 못 들어오게 햅구나.’ 허영 이제 다시 종선을 불러그네 배가 들어간. 들어가난 장수가 아니고 역적이여. 이젠 들어간 딱 허게 문 앞이 들어가 난 천자또 하르방이

“너는 어디서 난 장수냐?”

“난 서울 남산봉 중허리에서 낫인디. 아버지는 하늘이고, 땅은 어머니고, 무이 화로 난 장수우다.”

허난

“넌 뭘을 먹고 사느냐?”

허난

“밥도 한 동이, 떡도 한 동이, 술도 한 동이, 돼지도 전 마리로 먹습니다.”

허난

“푸, 더럽다. 우리허고 불지 못 허겠다. 돼지 전 마리 먹으난 동참을 못할 거 난, 나고 가라.”

허영 보내난 올레 낭 가가난 이제 백조부인이

“아니, 돼지를 안 먹어그네 살 수가 있젠히민, 보내지 말양 부부간 허영 사는 게 어떻 허우꽈?”

아바지한티 천자또 하르방한티 물으난

“게민 불러그네 돼지 안 먹엉 살 수 잇이넨 불령 물어 보게.”

허영 이제 돌아오렌 허연 돌아완. 돼지를 안 먹엉, 떡, 밥일랑 먹어도 돼지를 안 먹엉 살 수 잇이넨 허난 부부간 살肯 하민 돼지를 안 먹으肯. 돼지를 안 먹엉 석 달 백 일 살아가난 배짝 말르고 죽을 상 되는 거라. 죽을 상 웨난

“아이고, 아바지. 날로 헤그네 천하장수를 죽일 수 엇으난 우릴랑 돼지 먹지 말고 저 장수랑 돼지 맥영 살아나게 헙서. 다 죽어값우다.”

허난, 돼지 못 먹게 허난 죽어값우덴 허난

“어떻허믄 아니 먹게 우리허고 따로 혈 수가 시니?”

허난, 한 상에 출려나도 영 가운데 곱 갈라낳, 이쪽에는 돼지 먹는 디, 이쪽에는 돼지 안 먹는 디 헤그네 경허믄 텐덴 허연. 경허렌 허연.

그때 김영감집의 뜰이 막 아팡 죽어값어. 죽어가난 어디 강 들으난 돼지 전 마리를 먹이민 듯제를 허민 살아나肯 허난, 김영감집이 강 보난 대돛을 심없이난 검은돛. 백돛이 아니고 검은돛 헤그네 그걸 잡양 털 뽑아 놓고, 듯 잡아난 피 헤놓고, 발톱 다 뽑아 노난 김영감 뜰이 살아난 거라.

경허영 듯 잡양 살아나난 금상한집은 할 수 엇이 천자또 하르방하고 백조부인은 한쪽으로 상을, 그 음식을 경허주기.

무신 잔치허젠 허나 소상허젠 허나 허민 듯을 두 마리 잡양 허는디. 훈쪽 상에는 천자또 하르방. 백조부인은 훈쪽 상으로 모시고, 훈쪽 상으로는 금상한집 헤그네 돼지 훈 마리 헤그네 열두 뼈에 거 다 썰어그네 열두 개 올리고, 발톱 다 골고루 헤 놓고, 털 매어 놓고, 피 받아 놓고, 삶아난 물도 사발에 다 받아 놓고, 허영 경허영 듯제허는 거.

경허난 이제 김녕, 한동, 세화리레 몬딱 듯제허는 거. 들풀헤그네 큰일 허젠 허민 들풀제허고 그디 사람이 만약 이래 시집온다. 시집오랑 들풀제 안헤가민 무신 병을 걸리느냐. 목으로 피 쏟아정 죽어. 김녕 사람은 오랑 그걸 안허민 목으로 피 쏟아정 죽으난 흐끔 무신 거 허젠 헤도 돼지 발허고, 돼지 머리허고, 돼지 안 칩허고 허영 온통 못 잡으민 이젠 그추룩들 헷주게. 전 듯 잡지 못허민 돼지 머리허고 안침허고 발톱허영 놓고 헤그네 문전으로 잔치라도 혈 때는 문전으로 들풀제를 허는 거. 금상한집뿐.

- 핵심어: 금상또, 장수(장사), 역적, 무쇠집, 천자또, 백조부인, 듯(돼지), 금상한집, 문전, 들풀제, 김녕, 한동, 세화, 천하장사